

도서관에 관한 표어 조사 분석*

- 도서관 주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otto of Library

이 만 수(Man-Soo Lee)**

< 목 차 >

I. 서론	III. 도서관에 관한 표어 조사 분석
II. 표어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도서관에 관한 표어 조사
1. 표어의 의미	2. 도서관에 관한 표어 분석
2. 표어의 특징	IV. 도서관에 관한 표어 분석 결과 논의
3. 표어의 유형	V. 결론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표어의 특징, 유형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고 도서관 주간의 표어를 조사하고 분석하는데 있다. 도서관 주간의 표어를 분석해 보면 간결하고 도치된 표어가 많다. 대구와 반복 음절을 쓰고 있다. 청유형과 서술형, 명사형이 많고 국어로 된 단어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반복하여 계속 사용되고 있으며, 한 시대의 목표와 철학을 나타내고 있다.

주제어: 도서관, 도서관 표어, 도서관 주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rrange theory for characteristic & type of motto and to research the motto of library week for the promotion of library

The results show that the motto of library week was brevity, reverse, antithesis, repetition, leading, narrate, term and the korean language. The motto of library shows philosophy, target of a time

Key Words: Library, Motto Of Library, Library Week

* 이 논문은 2005학년도 대진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대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mslee@daejin.ac.kr)

• 접수일: 2005년 8월 20일 • 최초심사일: 2005년 8월 25일 • 최종심사일: 2005년 9월 5일

I. 서론

우리는 주위에서 홍보용이나 교육용 표어를 많이 볼 수 있다. 'Hi Seoul', '양보하면 편안한 길, 조심하면 안전한 길', '열린 청계, 푸른 미래', '함께 해요 재난 예방, 함께 가요 밝은 미래', '산 산 산, 나무 나무 나무' 등과 같은 표어이다. 요즘은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등과 같이 시대의 변화에 따른 출산장려 표어가 보이기도 한다. 최근 어떤 기업에서는 "SK 짠들이, 짠순이 모여라"라는 캠페인을 통해 에너지 절약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한편 엘리베이터에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세요'라는 표어를 부착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기업이나 관공서는 물론 학교, 특히 대학가에서도 프랑카드와 현수막을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기념일이나 행사장에는 빠짐 없이 표어를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머리 속에는 수많은 표어가 각인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서관에 관련된 익숙한 표어들 중에는 '찾는 도서관, 얻는 새 지식', '도서관, 국민 문화 복지의 요람', '좋은 도서관,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와 같은 것이 있다. 이 표어는 누구나 공감하는 참으로 옳은 말이다. 이러한 표어는 간단하고 짧은 말이지만 도서관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의미 있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4월 도서관 주간을 맞이하여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도서관에 관한 표어를 공모하고 있다. 2005년 제41회 도서관 주간에는 표어를 공모하였는데, 그 결과, 최우수로 선정된 표어는 해당 작이 없고, 우수작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힘, 도서관에서 기르자',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유토피아, e-도서관'이었다. 그리하여 공식표어로 '세계를 움직이는 힘, 도서관에서 기르자'로 선정하였다.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이러한 표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며, 도서관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21세기 새로운 도서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기관, 공공기관, 각종 단체, 언론, 기업 등 대부분의 기관에서 저마다의 기념일이나 행사에서 홍보 및 교육적인 목적으로 표어를 내 걸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에서도 2005년 제41회까지 도서관 주간인 4월 12일부터 4월 18일에 표어를 내어 걸고 도서관을 홍보하여 왔던 것이다. 바로 이런 행사를 통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도서관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한 표어의 특징과 유형 등에 대한 조사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1회부터 41회까지의 도서관 주간에 제정 공표한 표어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여 표어의 경향을 파악하여 도서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범위는 도서관 주간의 표어에 한정하여 인터넷과 도협월보, 도서관 등 도서관협회나 각 도서관 그리고 독서 단체에서 발간한 자료를 조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도서관 주간 행사 때에 표어를 활용하였다는 기록이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

로 어떤 표어를 활용하였는지 찾을 수 없는 해가 다소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확인된 해를 중심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논문의 한계이다.

II. 표어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표어의 의미

표어의 역사는 매우 오래 되었는데, 표어가 처음 생긴 것은 서양의 무사들이 방패에 새긴 제명(題銘)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¹⁾ 표어(motto)란 '사회나 집단에 대하여 어떤 의견이나 주장을 호소하거나 철저히 주지시키기 위하여 그 내용을 간결하고 호소력 있게 표현한 짧은 말'이다. 예를 들면 독서표어로 '읽으면 행복합니다.'라든가 2005년 9월 1일부터 4일에 개최된 39억 아시아인의 축제라고 일컫는 제16회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의 표어로 '세계는 아시아로, 아시아는 인천으로'라든가, 또는 교통안전 표어로 '안전벨트 생명벨트, 안전속도 생명속도' 등이다. 유명한 표어로 올림픽 표어가 있는데, 소개하면 '보다 빠르게, 보다 높게, 보다 강하게(Citius, Altius, Fortius)'이다.

표어는 상징어의 일종이지만 도덕적 내용을 제1의(第一義)로 하는 금언(金言)이나 격언(格言), 광고 선전을 위한 캐치프레이즈 등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표어는 정치적 선동이나 선전에도 이용되는데, 전시표어(戰時標語)나 정당표어(政黨標語)에 이 종류의 표어들이 많이 보인다. 표어는 리듬이 있고 대중에게 호소하는 것이 생명이지만, 논리성보다는 정서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데마고기(demagogy: 선동적인 선전)가 될 위험성도 있는 것이다.²⁾

광고의 표어를 살펴보면 기업의 주장이나 상품의 특징을 짧은 언어로 나타낸 것이나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읽기 쉽고, 말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고, 리듬감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리고 상품명을 넣어 지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표어는 '특정한 사상, 감정, 사실, 판단 등을 전파하는 기술'이며 '의견, 행동, 태도 등을 변화시키고 정치적, 상업적, 사회적 목적 하에서 계획되는 의도적인 활동'이다. 또한 '간단한 언어와 반복효과를 상징하는 전달수단'³⁾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표어와 유사한 슬로건(slogan)이란 말도 있다. 슬로건은 '대중의 행동을 조작(操作)하는 선전에 쓰이는 짧은 문구'를 말한다. 이 말은 본래 스코틀랜드에서 위급할 때 집합신호로 외치는 소리(sluagh-ghairm)를 슬로건이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인간은 전적으로 논리적인 판단만을 하는

1) <http://blog.empas.com/ewcys7/read.php?a20=1428> [인용 2005. 5. 2].

2) <http://100.empas.com/entry.html/?i=182718&v=46&Ad=Encyber> [인용 2005. 5. 2].

3) <http://blog.empas.com/ewcys7/read.php?a=1428> [인용 2005. 5. 3].

것은 아니며 정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면도 적지 않다. 특히 대중은 피암시성(被暗示性)이 강하므로 정서적으로 채색된 단순한 표어가 효과를 나타내는 수가 많다. 그것은 정치행동으로부터 상업광고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는데, 하나같이 내용이 이해하기 쉽고 표현이 단순하며, 단정적(斷定的)이라는 점 등이 중요한 요소로 되어 있다. 또한 대중의 태도가 동요(動搖)적이고 미확정적일 때일수록 슬로건의 호소력은 크다고⁴⁾ 할 수 있다.

그리고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란 말도 있다. 이 말은 타인의 주의를 끌기 위해 내세우는 기발한 문구이다. 캐치프레이즈는 사용되는 경우와 범위에 따라서 뉘앙스가 다소 다른데, 신문·잡지의 기사, 문장 등의 편집에 사용되는 경우와 점두 판매에 쓰이는 경우 등이 있다. 캐치프레이즈의 구비 요건으로는 내용의 핵심을 단적으로 표현할 것, 짧을 것, 눈에 띄기 쉬울 것, 인상적이고 강렬한 글귀일 것 등을 들 수 있다. 광고에서의 캐치프레이즈는 사람들이 광고에 관심을 가지느냐, 않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한 마디의 문구가 광고의 구독률, 나아가서는 상품의 매상에 영향을 끼치게 때문이다. 캐치프레이즈는 당연히 광고의 내용(본문)을 읽도록 유도하는 구실을 하며 그것만으로써 광고주·상품명을 쉽게 상기할 수 있어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호감을 사고 있다. 또한 독립된 표어나 슬로건의 의미로 쓰인다.

다시 말하면 표어란 '어떤 의견이나 주장을 호소하거나 알리기 위하여 주요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한 짧은 말귀' 즉 슬로건이다.

2. 표어의 특징

표어는 사회나 집단에 대하여 어떤 의견이나 주장을 호소하거나 주지시키기 위하여 그 내용을 간결하고 호소력 있게 표현한 짧은 말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표어는 특정 상황에 대하여 대상자들을 계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현실에 바탕을 둔 표어를 만들어야 한다. 시대에 맞지 않거나 허황된 표어는 대상자들의 외면을 살 뿐 아니라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2) 목적이 확실하다.

〈읽으면 행복합니다〉, 〈좋은 도서관,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등의 표어는 금방 눈에 들어온다. 그렇다고 꼭 직설적인 표현이 좋다고 할 수는 없다. 암시적인 표현도 목적이 확실해야 한다. 〈책을 읽자〉보다는 〈책 읽는 작은 여유 마음속의 큰 행복〉, 〈기름이나 물을 아끼자〉보다 〈한 방울

4) <http://100.empas.com/entry.html/?i=99868&v=46&Ad=Encyber> [인용 2005. 5. 2].

도 아끼자)라는 표어는 암시적이지만 더 큰 효과를 내는 것이다.

(3) 지속성이 있다.

사람의 심리적 상태는 자주 자극을 받게 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계속되면 신념으로 발전하는 예를 종교에서도 볼 수 있다. 표어에서 예를 들면 <불 불 불조심>, <건강을 위하여지나친 흡연을 삼갑시다.>, <차레차레 타는 습관 다져지는 교통질서> 등은 과거에도 많이 썼고 지금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4) 독창성이 있다.

독창성이 결여되면 내용 전달에 급급해지고 싫증을 느끼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봉사하는 작은 손길 이웃사랑 실천의 길>, <되로 배운 자원봉사 말로 되어 돌아온다.>, <독서력이 국력입니다.> 등이다.

(5) 보편성이 있다.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도 함께 지녀야 한다. <아빠! 오늘도 무사히>, <내가죽는 휴지 한 장, 오천만이 웃고 산다.>, <사람은 자연보호, 자연은 사람보호> 등은 독창성과 보편성을 함께 지닌 표어라 할 수 있다.

(6) 단순하고 간결하다.

표어는 단순하면서도 간결하고 짧은 문구라야 한다. 예를 들면 <산 산 산, 나무 나무 나무>, <봉사의 마음 행복의 미소>, <아빠의 금연 가정의 행복>, <금연은 가족 사랑>등과 같은 표어이다.

(7) 계도적이다.

표어에는 대중을 설득하는 기능과 알리는 기능이 있다. 또한 보는 이로 하여금 합리적인 사고방식에 입각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다. <낭비 앞에 풍요 없고 저축 앞에 가난 없다>, <사고 장소 따로 없고, 사고시간 예고 없다. <19 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등 많은 표어가 계도의 기능이 있는 표어이다.

(8) 사회성이 있다.

표어는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를 제시한다. 시대에 맞지 않은 표어는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1970-80년대에는 <간첩을 잡자>, <새마을 운동> 이런 표어가 그 시대를 나타내 주었다면, 2000년 대에는<새 천년의 약속 제2의 건국>, <지역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등 이런 표어가 오늘날 시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이외에도 대중의 주의를 끄는 특징이 있다. 또한 관심과 욕망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결심과 행동을 하도록 촉구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기만의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표어의 유형

가. 구조적 유형

표어는 구조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을 가지고 있다.

(1) 짧고 간결하다.

대부분의 표어는 16음절 이내이며, 조사와 술어는 생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띄어쓰기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국어사랑 나라사랑>, <바른 삶 실천하기>, <총력 안보>, <새마을 새마을> 등이 있다. 운율을 위해서 조사를 넣는 경우가 있다. <초소가 따로 없다 내 선 곳이 초소이다>, <남의 일에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등이 있다.

(2) 도치법을 쓴다.

뜻을 강조하기 위하여 앞뒤의 말을 바꾼다. <상기하자 6·25>, <북괴는 우리를 노린다 우리의 혼란을> 등이 있다. 이런 유형의 표어들은 뜻을 확실히 드러낸다.

(3) 대구(對句)형식이다.

대구형식은 읽기 쉽고, 편하다. 옛날부터 내려 온 우리의 정서에 맞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문학 장르인 시나 시조 등 운문에는 3음조, 4음조가 많다. 국어의 어휘도 3음절, 4음절이 많은 것을 예를 들 수 있다.

(4) 반복법 형식이다.

<도서관, 지역문화의 뿌리. 도서관, 한국역사의 뿌리. 도서관, 문화의 뿌리>, <불 불 불조심>, <산 산 산, 나무 나무 나무>, <설마 설마 방심말고, 조심 조심 불조심> 등이 그 예이다.

나. 문장의 유형

(1) 청유형이다.

표어라는 속성 자체가 대중을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명령형은 드물다. 대부분의 표어가 ~하자

등으로 대중을 유도한다. <지역주민의 힘으로 도서관에 책을 채우자>, <우리 마을에 도서관을 만들자>. 예외로 명령형은 <씻어라 비벼라 말려라>, <와서 보시오>, <화기 진입 금지> 등 소수에 불과하다.

(2) 서술형이다.

현대로 올수록 서술형이 많은 것을 보면, 딱딱한 것보다 부드러운 것을 원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좋은 도서관,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공중전화는 우리 모두의 재산, 다같이 아끼고 깨끗이 사용합시다.> 등이다.

(3) 명사형이다.

형태는 비록 명사형이지만 서술어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폭력추방>, <세계는 하나>, <이용하는 도서관, 발전하는 나의 삶> 등은 비록 명사형으로 끝났지만 기능은 서술형이다.

(4) 순수 국어로 많이 창작된다.

대부분의 표어들은 순수 국어로 만들어진다. <e-도서관>, <dream @library>, <벨트>, <에너지> 등 영어를 사용한 표어는 몇 개에 불과하다.

다. 주제별 유형

(1) 비유나 상징이 드물다.

금방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효과가 크기 때문에 비유나 상징 대신 강조법이 많이 사용된다. 예는 ~있다, ~없다 등으로 나타낸다. <필승의 신념 앞에 6·25는 다시 없다> 등이다.

(2) 주제는 시대에 따라 많이 변한다.

옛날에는 가족계획, 건설, 새마을, 간첩신고 등이 많았는데 현대로 올수록 IMF, 경제위기, 새천년, 교통 등이 많았고, 환경문제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졌다는 사실이다.

(3) 의미상 같은 주제 안에서도 대립된다는 사실이다.

뜻을 강조하기 위하여 대립되는 낱말을 쓴다. 예를 들면 <짧은(+적음) 시간 많은(-적음) 노력 자기발전 나라발전> <오분(+단기) 먼저 가려다 오십년(-단기) 먼저 간다>, <아는 질서(+질서) 실천하고 틀린 질서(-질서) 반성하자>, <모이면(+모임) 질서 헤어지면(-모임) 청결>, <과속(+과속)은 위험 안전거리(-과속) 유지>, <퇴폐향락(-건전) 바로잡아 건강사회(+건전) 건설>, <땅굴과며 남북대화(+평화) 속지말자 위장평화(-평화)>, <사고는 순간(+단기) 불행은 영원(-단기)> 등

수 십 개의 표어에서 대립되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어휘가 반드시 상대어는 아니다. 예를 들면 오 분과 오십 년은 상대어는 아니나 시간의 길이를 구별하는 낱말로 서로 대립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긍정적으로 호소하는 주제와 부정적으로 호소하는 주제가 많다.

예를 들면 긍정은 <우리 모두 친절합시다> 등 거의 모든 표어가 해당되고 부정적인 경우는 <우리는 싫어한다, 범죄와 무질서를>, <분열을 자멸이다, 총화만이 살 길이다.> 등이다.

(5) 주제가 직설적으로 표현된다.

예를 들면 <읽으면 행복합니다>, <당신도 이 물을 마십니다>, <생태계의 죽음! 당신도 예외일 순 없습니다.> 등이다.

(6) 주제가 시대에 따라서 의미가 전이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지수하여 광명찾자>라는 표어는 원래 간첩 설득용 이었으나 요즈음은 다방면에 많이 쓰이고 있다.

Ⅲ. 도서관에 관한 표어 조사 분석

1. 도서관에 관한 표어 조사

도서관 주간은 1955년 4월 16일 한국도서관협회 창립 주간을 앞뒤로 하여, 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평소 도서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1965년부터 시작 되었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사를 전개하여 오고 있다. 그 결과 행사기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도서관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였고, 도서관이 이용자에게 더욱 가까이 있게 하였다. 도서관 주간은 매년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이다. 1965년 제1회부터 2005년 현재 제41회까지의 도서관 주간 표어는 다음과 같다.

(1) 제1회(1965년)

(2) 제2회(1966년)

① 읽어서 얻은 곳, 주어서 기쁜 곳⁵⁾

5) 새마을운동본부, 월간마을문고, 1966. 4. p.40.

- (3) 제3회(1967년)
 - ① 봉사정신 한테모아, 도서관의 등불 되자.⁶⁾
 - ② 봉사도 내가 먼저, 연구도 내가 먼저⁷⁾
 - ③ 가꾸자 도서관, 슬기의 샘터다.⁸⁾
- (4) 제4회(1968년)⁹⁾
 - ① 찾아간 도서관, 보람찬 하루
 - ② 봄비는 도서관, 희망찬 이 겨레
 - ③ 늘어가는 도서관, 줄어드는 사회악
- (5) 제5회(1969년)
- (6) 제6회(1970년)
- (7) 제7회(1971년)
- (8) 제8회(1972년)
 - ① 새마을에 독서로 앞장서자.¹⁰⁾
 - ② 독서로 앞장서자, 새마을 운동
- (9) 제9회(1973년)
- (10) 제10회(1974년)
- (11) 제11회(1975년)
- (12) 제12회(1976년)
- (13) 제13회(1977년)¹¹⁾
 - ① 독서하는 생활 속에, 밝아오는 우리사회
 - ② 독서하는 국민, 발전하는 국가
- (14) 제14회(1978년)
- (15) 제15회(1979년)
- (16) 제16회(1980년)
 - ① 도서관문화 일으켜서, 독서문화 살찌우자.
- (17) 제17회(1981년)
 - ① 독서하는 문화시민, 발전하는 시민사회

6)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제22권, 제4호(1967, 4), p.6.
7) 국립중앙도서관, 상계서.
8)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제22권, 제7호(1967, 7·8), p.28, p.31.
9) 한국도서관협회, 도협월보, 제9권, 제2호(1968, 5), p.1.
10) 새마을운동본부, 월간마을문고, 1972, 4, p.12
11) 한국도서관협회, 도협회보, 제18권, 제2호(1977, 3), p.27.

(18) 제18회(1982년)

- ① 도서관이 함께하는 정보사회
- ② 다같이 이용하자, 온 겨레의 서재를¹²⁾
- ③ 찾는 도서관, 얻는 새 지식¹³⁾
- ④ 세우자 도서관, 기르자 나라 힘¹⁴⁾

(19) 제19회(1983년)

- ① 봉사하는 도서관, 만족하는 국민의식

(20) 제20회(1984년)

- ① 살아있는 도서관, 생동하는 국민정신

(21) 제21회(1985년)

-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문화시민, 문화시민이 이룩하는 민주사회

(22) 제23회(1986년)

- ① 도서관, 국민의 서재
- ② 세우자 도서관, 기르자 나라 힘¹⁵⁾

(23) 제23회(1987년)

- ① 도서관, 문화의 샘터
- ② 찾는 도서관, 얻는 새 지식¹⁶⁾
- ③ 세우자 도서관, 기르자 나라 힘¹⁷⁾

(24) 제24회(1988년)

- ① 도서관, 지혜의 샘

(25) 제25회(1989년)

- ① 도서관, 국민 문화 복지의 요람

(26) 제26회(1990년)

- ① 매일매일 이용하는 도서관, 하루하루 얻어지는 새 지식

(27) 제27회(1991년)¹⁸⁾

- ① 도서관, 문화의 뿌리
- ① 이용하는 도서관, 발전하는 나의 삶

12) 한국도서관협회, 도협회보, 제23권, 2호(1982, 3·4), p.21.

13) 한국도서관협회, 상계서.

14) 한국도서관협회, 상계서.

15) 한국도서관협회, 도협회보, 제27권, 제2호(1986, 3·4), p.48.

16) 한국도서관협회, 도협회보, 제28권, 제2호(1987, 3·4), p.20.

17) 한국도서관협회, 상계서

18)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문화, 제32권, 제2호(1991), p.72.

- ② 매일매일 이용하는 도서관, 하루하루 얻어지는 새 지식
- ③ 학교는 졸업할 수 있어도, 도서관은 졸업할 수 없다.
- ④ 도서관, 문화의 뿌리. 도서관 지역문화의 뿌리. 도서관, 한국역사의 뿌리
- ⑤ 도서관은 문화의 뿌리요, 꽃이다.
- ⑥ 도서관은 국민적 문화 복지의 요람이다.

(28) 제28회(1992년)¹⁹⁾

- ① 우리 마을에 도서관을 만들자.
- ② 도서관은 국민의 서재이다.
- ③ 도서관은 국민적 문화 복지의 요람이다.
- ④ 도서관은 문화의 뿌리요 꽃이다.
- ⑤ 도서관, 지역문화의 뿌리. 도서관, 한국역사의 뿌리. 도서관, 문화의 뿌리
- ⑥ 학교는 졸업할 수 있어도, 도서관은 졸업할 수 없다.
- ⑦ 매일 매일 이용하는 도서관, 하루하루 얻어지는 새 지식
- ⑧ 이용하는 도서관, 발전하는 나의 삶
- ① 앞서가는 도서관, 밝아오는 미래사회

(29) 제29회(1993년)

- ① 열린 도서관, 꽃피는 정신문화

(30) 제30회(1994년)²⁰⁾

- ① 도서관 미래를 여는 문
- ② 이용하는 도서관, 발전하는 삶
- ③ 매일 매일 이용하는 도서관, 하루하루 얻어지는 새 지식
- ④ 학교는 졸업할 수 있어도, 도서관은 졸업할 수 없다.
- ⑤ 도서관, 지역사회의 뿌리, 도서관, 한국역사의 뿌리, 도서관, 문화의 뿌리.
- ⑥ 도서관은 문화의 뿌리요, 꽃이다.
- ⑦ 도서관은 국민적 문화 복지의 요람이다.
- ⑧ 도서관은 국민의 서재이다.
- ⑨ 우리 마을에 도서관을 만들자.
- ⑩ 지역주민의 힘으로, 도서관에 책을 채우자.
- ⑪ 책을 펴자·미래를 열자·도서관에서
- ⑫ 국민이 원하는 도서관 봉사, 도서관 건립으로 이룩된다.

19)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문화, 제33권, 제2호(1992), pp.44-45.

20) 한국도서관협회 사무국 발송 공문, 1994년 3월.

- ⑬ 국민의 쉬운 도서관 이용을 위하여, 작은 도서관을 많이 만들자.
- ⑭ 국민의 결의로, 도서관을 이동하자.
- ⑮ 살아 움직이는 도서관 열람봉사, 살아 숨쉬는 도서관 참고봉사
- ⑯ 우리가 봉사하는 도서관, 국민이 만족하는 도서관
- ⑰ 20세기 문화를 창조하는 도서관, 20세기 문화를 주도하는 도서관
- ⑱ 일상생활과 같이 하는 도서관, 생활은 행복이 주어지고 지혜가 얻어진다.
- ⑲ 도서관은 문화인의 스승

(31) 제31회(1995년)²¹⁾

- ① 도서관, 생활 속의 열린 문화 공간
- ② 열린 도서관, 꽃피는 정신문화
- ③ 앞서가는 도서관, 밝아오는 미래사회
- ④ 도서관, 미래를 여는 문
- ⑤ 이용하는 도서관, 발전하는 나의 삶
- ⑥ 매일매일 이용하는 도서관, 하루하루 얻어지는 새지식
- ⑦ 학교는 졸업할 수 있어도, 도서관은 졸업할 수 없다.
- ⑧ 도서관, 지역문화의 뿌리, 도서관, 한국 역사의 뿌리, 도서관, 문화의 뿌리
- ⑨ 도서관은 문화의 뿌리요, 꽃이다.
- ⑩ 도서관은 국민적 문화 복지의 요람이다.
- ⑪ 도서관은 국민의 서재이다.
- ⑫ 국민이 원하는 도서관 봉사, 도서관 건립으로 이룩된다.
- ⑬ 국민의 결의로 도서관을 이동하자.
- ⑭ 살아 움직이는 도서관 열람봉사, 살아 숨쉬는 도서관 참고봉사
- ⑮ 우리가 봉사하는 도서관, 국민이 만족하는 도서관
- ⑯ 20세기 문화를 창조하는 도서관, 21세기를 문화를 주도하는 도서관

(32) 제32회(1996년)

- ① 도서관, 문화와 미래가 있습니다.
- ② 도서관, 정보화 사회의 기수

(33) 제33회(1997년)

- ① 함께 하는 도서관, 밝아지는 우리 미래
- ② 열린 도서관, 세계로 가는 길

(34) 제34회(1998년)

21) 한국도서관협회 사무국 발송 공문, 1995년 3월.

- ① 도서관에 가서 보면 길이 보인다.
- ② 주름잡힌 우리경제, 도서관에서 희망있다.
- ③ 도서관, 지식정보사회의 기반

(35) 제35회(1999년)²²⁾

- ① 도서관, 보다 나은 세상으로 열린 문
- ②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 우리 앞날 밝게 열자.
- ③ 우리는 도서관에서 지식정보사회를 열어 갑니다.
- ④ 도서관은 커다란 책, 우리 모두의 자산입니다.
- ⑤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의 샘, 우리 함께 키웁시다.
- ⑥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 우리 앞날 밝게 열자.
- ⑦ 함께 만들어 가는 도서관, 같이 누리는 밝은 미래
- ⑧ 21세기 새 천년, 도서관이 그 희망입니다.
- ⑨ 도서관, 정보화 사회의 기수
- ⑩ 도서관, 생활 속의 열린 문화 공간
- ⑪ 도서관, 미래를 여는 문
- ⑫ 열린 도서관, 꽃피는 정신문화
- ⑬ 앞서가는 도서관, 밝아오는 미래사회
- ⑭ 이용하는 도서관, 발전하는 나의 삶
- ⑮ 도서관, 국민 문화 복지의 요람
- ⑯ 열린 도서관, 세계로 가는 길

(36) 제36회(2000년)²³⁾

- ① 도서관, 꿈이 이루어지는 곳(dream@Library)
- ② 지식정보사회 나의 경쟁력, 도서관에서 키워갑니다.
- ③ 우리는 도서관에서 지식정보사회를 열어갑니다.
- ④ 도서관은 커다란 책, 우리 모두의 자산
- ⑤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의 샘, 우리함께 키웁시다.
- ⑥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 우리 앞날 밝게 열자.
- ⑦ 함께 만들어 가는 도서관, 같이 누리는 밝은 미래
- ⑧ 21세기 새 천년, 도서관이 그 희망입니다.
- ⑨ 도서관, 국민 문화 복지의 요람

22) 한국도서관협회 사무국 발송 공문, 1999년 3월.

23) 한국도서관협회 사무국 발송 공문, 2000년 3월.

- ⑩ 도서관, 생활 속 열린 문화 공간
- (37) 제37회(2001년)
- ① 도서관에 가면 먼 곳이 보인다.
 - ② 도서관, 지식정보시대 나의 경쟁력
 - ③ 오늘날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었다.(빌게이츠)
- (38) 제38회(2002년)²⁴⁾
- ① 도서관은 지혜의 보고, 도서관에서 미래를 개자.
 - ② 좋은 도서관,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 ③ 아! 도서관에 가고 싶다.
- (38) 제39회(2003년)²⁵⁾
- ① 도서관이 일상의 꿈과 행복을 드립니다.
 - ② 도서관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 ③ 도서관이 국민과 함께 참여시대를 열어갑니다.
- (39) 제40회(2004년)
- ① e-도서관에서 21세기 꿈과 희망이 실현됩니다.
 - ② 지식·정보·꿈@도서관
 - ③ 당신이 도서관의 친구입니다.
- (40) 제41회(2005년)²⁶⁾
- ① 세계를 움직이는 힘, 도서관에서 기르자.
 - ②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유토피아, e-도서관

2. 도서관에 관한 표어 분석

표어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표어를 간결성, 도치성, 대구성, 반복성 관점에서 분석하고, 내용 분석으로 칭유형, 서술형, 명사형, 외국어 표현 등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도서관주간 제1회(1965년), 제5회(1969년)부터 제8회(1972년)까지, 제9회(1973년)부터 제12회(1976년)까지, 제14회(1978년), 제15회(1979년)의 표어는 조사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분석하지 못하였다. 추후에 다시 조사하여 분석할 예정이다.

24) http://www.seobu-lib.daegu.kr/s_book/book_01_02.htm [2005. 5. 20].

25) http://chungdong.or.kr/bbs/hn_content.asp?id=556&ref=336&re_step=0&re_level=0&page=9 [2005. 5. 20]

26) 오마이 뉴스, 2005. 4. 15.

가. 구조적 분석

(1) 간결성

조사된 표어는 비교적 짧고 간단하다. 가장 짧은 것이 7 음절이다. 예를 들면 “〈도서관 지혜의 샘〉, 8 음절에는 〈도서관 국민의 서재〉, 〈도서관 문화의 뿌리〉, 〈도서관 문화의 샘터〉 등이다. 9 음절에는 〈도서관 미래를 여는 문〉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이 3,3 조, 4,2 조, 3,4 조, 4,4 조로 12 음절, 14 음절, 16 음절로 이루어져 있고, 가장 긴 것이 29 음절로 1994년 도서관 주간 표어인 〈일상생활과 같이 하는 도서관 생활은 행복이 주어지고 지혜가 얻어진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표어가 짧고 간결하다.

(2) 도치성

뜻을 강조하기 위하여 앞뒤의 음절을 바꾸어 표현한 것이다. 예를 들면 〈다 같이 이용하자 온 겨레의 서재를〉, 〈세계를 움직이는 힘 도서관에서 기르자〉, 〈지식·정보·꿈 @도서관〉, 〈책을 펴자, 미래를 열자, 도서관에서〉 등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다.

(3) 대구성(對句性)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에 가장 알맞은 표어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다. 흔히 운문에 나오는 것으로 3,3 조, 4,2 조, 3,4 조, 4,4 조가 많다. 예를 들면 〈찾아간 도서관 보람찬 내 하루〉, 〈읽어서 얻는 곳, 주어서 기쁜 곳〉, 〈늘어가는 도서관 줄어드는 사회악〉, 〈세우자 도서관 기르자 나라 힘〉 등으로 대부분의 도서관에 관한 표어가 대구성을 가진다. 〈매일매일 이용하는 도서관, 하루하루 얻어지는 새 지식〉등과 같이 표어의 생명은 바로 대구성에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4) 반복성

강조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반복 음절을 쓴다. 예를 들면 〈도서관 지역 문화 뿌리, 도서관 한국 역사의 뿌리, 도서관 문화의 뿌리〉, 〈우리가 봉사하는 도서관, 국민이 만족하는 도서관〉, 〈봉사도 내가 먼저 연구도 내가 먼저〉, 〈도서관을 이용하는 문화시민, 문화시민이 이룩하는 민주사회〉 등이다.

나. 문장 유형 분석

(1) 청유형

~ 합시다. ~ 하자 와 같이 대중을 유도하고 권유하는 형태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강한 의지로 이룩하기 위하여 강조할 때 쓰이는 캠페인 표어이다. 조사된 도서관에 관한 표어에서 예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이 유형은 초기에 비교적 많이 발견되었다.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의 샘, 우리함께 키웁시다.〉, 〈우리 마을에 도서관을 만들자〉, 〈봉사정신 한데 모아 도서관의 등불되자〉,

〈도서관 문화 일으켜서 독서문화 살찌우자〉, 〈세우자 도서관 기르자 나라 힘〉, 〈지역주민의 힘으로 도서관에 책을 채우자〉, 〈국민의 곁으로 도서관을 이동하자〉, 〈세계를 움직이는 힘 도서관에서 기르자〉 등이다.

(2) 서술형

현대로 올수록 서술형이 많이 발견된다. 이런 표어는 부드럽게 느껴진다. 〈도서관은 국민적 요람이다〉, 〈e-도서관에서 21세기 꿈과 희망이; 실현됩니다〉, 〈도서관이 국민과 함께 참여시대를 열어 갑니다〉, 〈도서관이 일상의 꿈과 행복을 드립니다〉, 〈21세기 새 천년 도서관이 그 희망입니다〉, 〈좋은 도서관,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등이다.

(3) 명사형

표어의 형태는 명사형이지만 서술어 기능을 가지고 있다. 조사된 표어에서 많이 나타나고 형태 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면 〈도서관 문화 복지의 요람〉, 〈도서관 커다란 책 우리 모두의 재산〉, 〈열린 도서관 세계로 가는 길〉, 〈도서관 미래를 여는 문〉, 〈도서관 문화의 뿌리〉, 〈이용하는 도서관 발전하는 나의 삶〉, 〈찾는 도서관 얻는 새 지식〉 등이다.

(4) 외국어

조사된 도서관에 관한 표어에는 외국어(영어)를 찾아보기 힘들고 거의 국어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외국어로 만들어진 표어가 보이는데 다음과 같다. 〈유토피아〉, 〈e-도서관〉, 〈@도서관〉, 〈dream@library〉라는 표어 등이다.

다. 사용 빈도 분석

같은 표어를 반복해서 사용한 횟수가 많다. 2회 사용한 표어는 〈국민이 원하는 도서관 봉사, 도서관 건립으로 이룩된다〉, 〈국민의 곁으로 도서관을 이동하자〉, 〈도서관 미래를 여는 문〉, 〈도서관, 지역문화의 뿌리. 도서관, 한국역사의 뿌리. 도서관, 문화의 뿌리〉,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의 샘, 우리 함께 키웁시다〉, 〈살아 움직이는 도서관 열람봉사, 살아 숨쉬는 도서관 참고봉사, '열린 도서관, 세계로 가는 길〉, 〈우리 마을에 도서관을 만들자〉, 〈우리가 봉사하는 도서관, 국민이 만족하는 도서관〉, 〈우리는 도서관에서 지식정보사회를 열어 갑니다〉, 〈21세기 새 천년, 도서관이 그 희망입니다〉, 〈찾는 도서관, 얻는 새 지식〉, 〈함께 만들어 가는 도서관, 같이 누리는 밝은 미래〉 등으로 모두 13개이다.

3회 사용한 표어는 〈도서관, 국민 문화 복지의 요람〉,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 우리 앞날 밝게 열

자), <도서관은 국민의 서재이다.>, <도서관은 문화의 뿌리요 꽃이다.>, <세우자 도서관, 기르자 나라 힘>, <앞서가는 도서관 밝아오는 미래사회>, <열린 도서관, 꽃피는 정신문화> 등 7개이다. 4회 사용한 표어는 <도서관은 국민적 문화 복지의 요람이다.>, <학교는 졸업할 수 있어도, 도서관은 졸업할 수 없다.>, <이용하는 도서관, 발전하는 나의 삶> 등 3개이다. 다. 그리고 5회 사용한 표어는 <매일매일 이용하는 도서관, 하루하루 얻어지는 새 지식> 1개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2회 이상 중복 사용한 것이 4종류로 모두 24개이다. 도서관 주간은 1965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초기에는 도서관협회나 관계자들에 의하여 표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같은 표어를 중복해서 많이 사용한 흔적이 보인다. 최근에는 국민들에게 공모하고 심사하여 선정한 표어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 없고 독창적이다.

라. 시대별 단어 분석

1960년대와 1970년대는 박정희 정권시대로 경제개발 시대라 할 수 있다. 도서관 주간 표어도 <희망찬 이 겨레>, <기르자 나라 힘>, <줄어드는 사회악> 등으로 도서관을 통하여 국가의 발전과 희망 찬 내일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8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민정신, 민주주의, 문화 복지, 즐거움, 미래 등으로 주로 국가 발전과 행복, 미래의 꿈을 나타내고 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는 문화, 지혜, 지식, 정보, 꿈, 행복, 희망 등으로 문화의 시대와 지식정보 사회에 관련 된 단어로 표어가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들에게 공모한 표어로 표현이 다양하고 문장이 비교적 길며 서술적인 표어가 많은 편이다.

표어는 그 시대의 목표, 철학 및 그 시대의 상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도서관 주간 표어도 예외는 아니다. 경제개발 시대의 대표적인 도서관 주간 표어로 <독서하는 국민 발전하는 국가>, <봄비는 도서관 희망찬 이 겨레>, <세우자 도서관, 기르자 나라 힘> 등이다. IMF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주름잡힌 우리경제, 도서관에서 희망 있다.”라는 표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지식기반 시대의 대표적인 표어로 <도서관, 문화의 뿌리>, <지식·정보·꿈@도서관>, <e-도서관에서 21세기 꿈과 희망이 실현 됩니다.> 등이다.

도서관을 나타내는 단어로는 샵터, 서재, 샘, 뿌리, 문, 공간, 요람, 기수, 경쟁력, 희망, 꽃, 문화, 책, 자산, 등불, 정신, 삶, 행복, 창조, 유토피아, 원리, 지식, 정보, 꿈, 미래 등이다.

IV. 도서관에 관한 표어 분석 결과 논의

표어를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면 간결하고 도치된 표어가 많다. 또한 대구와 반복 음절을 쓰고 있으며, 비교적 짧고 간단하다. 그리고 대부분이 3,3 조, 4,2 조, 3,4 조, 4,4 조로 12 음절, 14 음절, 16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 <도서관 국민의 서재>, <도서관 문화의 뿌리>, <도서관 문화의 샵터>.

등 8음절이 있다. 그리고 <도서관 미래를 여는 문> 등과 같은 9음절 도 보인다. 뜻을 강조하기 위하여 앞뒤의 음절을 바꾸어 표현한 것이 있다. 예를 들면 <다 같이 이용하자 온 겨레의 서재를>, <세계를 움직이는 힘 도서관에서 기르자>, <지식·정보·꿈 @도서관>, <책을 펴자, 미래를 열자, 도서관에서> 등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표어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대구성이 있다. 흔히 운문에 나오는 것으로 3.3 조, 4.2 조 3.4 조, 4.4 조가 많다. 예를 들면 <찾아간 도서관 보람찬 내 하루>, <읽어서 얻는 곳, 주어서 기쁜 곳>, <늘어가는 도서관 줄어드는 사회악>, <세우자 도서관 기르자 나라 힘> 등으로 대부분의 도서관에 관한 표어가 대구성을 가진다. <매일매일 이용하는 도서관, 하루하루 얻어지는 새 지식> 등과 같이 표어의 생명은 바로 대구성에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또한 강조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반복 음절을 쓰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도서관 지역 문화 뿌리, 도서관 한국 역사의 뿌리, 도서관 문화의 뿌리>, <우리가 봉사하는 도서관, 국민이 만족하는 도서관>, <봉사도 내가 먼저 연구도 내가 먼저>, <도서관을 이용하는 문화시민, 문화시민이 이룩하는 민주사회> 등이다.

문장의 유형을 보면 청유형, 서술형, 명사형, 외국어와 같은 유형이 있다. 예를 들면 ~ 합시다. ~하자와 같이 대중을 유도하고 권유하는 청유형이 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강한 의지로 이룩하기 위하여 강조할 때 쓰이는 캠페인 표어이다. 조사된 도서관에 관한 표어에서 예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이 유형은 초기에 비교적 많이 발견되었다.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의 샘, 우리 함께 키웁시다.>, <우리 마을에 도서관을 만들자>, <봉사정신 한데 모아 도서관의 등불 되자>, <도서관 문화 일으켜서 독서문화 살찌우자>, <세우자 도서관 기르자 나라 힘>, <지역주민의 힘으로 도서관에 책을 채우자>, <국민의 걸음으로 도서관을 이동하자>, <세계를 움직이는 힘 도서관에서 기르자> 등이다.

현대로 올수록 많은 형태로 서술형이 발견 된다. 서술형 표어는 부드럽게 느껴진다. <도서관은 국민적 요람이다.>, <e-도서관에서 21세기 꿈과 희망이; 실현됩니다.>, <도서관이 국민과 함께 참여시대를 열어 갑니다.>, <도서관이 일상의 꿈과 행복을 드립니다.>, <21세기 새 천년 도서관이 그 희망입니다.>, <좋은 도서관,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등이다. 그리고 표어의 형태는 명사형이지만 서술어 기능을 가진 유형이 있다. 조사된 표어에서 많이 나타나고 형태 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면 <도서관 문화 복지의 요람>, <도서관 커다란 책 우리 모두의 재산>, <열린 도서관 세계로 가는 길>, <도서관 미래를 여는 문>, <도서관 문화의 뿌리>, <이용하는 도서관 발전하는 나의 삶>, <찾는 도서관 얻는 새 지식> 등이다. 도서관에 관한 표어에는 외국어(영어)를 찾아보기 힘들고 거의 국어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외국어로 만들어진 <유토피아>, <e-도서관>, <@도서관>, <dream@library>라는 표어 등과 같은 표어가 보인다.

같은 표어를 반복해서 사용한 횟수가 많이 조사 되었다. 2회 사용한 표어는 <국민이 원하는 도서관 봉사, 도서관 건립으로 이룩된다.>, <국민의 걸음으로 도서관을 이동하자> 등으로 모두 13개이다. 3회 사용한 표어는 <도서관, 국민 문화 복지의 요람>,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 우리 앞날 밝게

열자) 등 7개 이다. 4회 사용한 표어는 <도서관은 국민적 문화 복지의 요람이다.>, <학교는 졸업할 수 있어도, 도서관은 졸업할 수 없다.> 등 3개이다. 그리고 5회 사용한 표어는 <매일매일 이용하는 도서관, 하루하루 얻어지는 새 지식> 으로 1개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2회 이상 중복 사용한 것이 4종류로 모두 24개이다.

도서관 주간 표어는 초기에 도서관협회나 관계자들에 의하여 표어가 만들어 졌기 때문에 같은 표어를 중복해서 많이 사용한 흔적이 보이나, 최근에는 국민들에게 공모하고 심사하여 선정한 표어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 없고 독창적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는 경제개발 시대로, 도서관 주간 표어에도 <희망찬 이 겨레>, <기르자 나라 힘>, <줄어드는 사회악> 등으로 도서관을 통하여 국가의 발전과 희망 찬 내일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국민정신, 민주주의, 문화 복지, 즐거움, 미래 등으로 주로 국가 발전과 행복, 미래의 꿈을 나타내고 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는 문화, 지혜, 지식, 정보, 꿈, 행복, 희망 등으로 문화의 시대와 지식정보 사회에 관련 된 단어로 표어가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들에게 공모한 표어로 표현이 다양하고 문장이 비교적 길며 서술적인 표어가 많은 편이다.

표어는 그 시대의 목표, 철학 및 그 시대의 상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데, 도서관 주간 표어도 예외는 아니다. 경제개발 시대의 대표적인 도서관 주간 표어로<독서하는 국민 발전하는 국가>, <봄비는 도서관 희망 찬 이 겨레>, <세우자 도서관, 기르자 나라 힘> 등이다. IMF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주름잡힌 우리경제, 도서관에서 희망 있다.> 라는 표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지식기반 시대의 대표적인 표어로 <도서관, 문화의 뿌리>, <지식· 정보· 꿈@도서관>, <e-도서관에서 21세기 꿈과 희망이 실현 됩니다.> 등이다.

도서관을 나타내는 단어로는 샘터, 서재, 샘, 뿌리, 문, 공간, 요람, 기수, 경쟁력, 희망, 꽃, 문화, 책, 자산, 등불, 정신, 삶, 행복, 창조, 유토피아, 권리, 지식, 정보, 꿈, 미래 등이다.

V. 결론 및 제언

표어는 사회나 집단에 대하여 어떤 의견이나 주장을 호소하거나 철저히 주지시키기 위하여 그 내용을 간결하고 호소력 있게 표현한 짧은 말이다. 도서관 주간 표어는 도서관에 대한 의견이나 주장을 호소하거나 알리기 위하여 주요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한 짧은 말귀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어의 특징, 유형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고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도서관 주간의 표어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조사된 표어를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면 간결하고 도치된 표어가 많다. 또한 대구와 반복 음절을 쓰고 있다. 또한 문장 유형을 분석해 보면 청유형과 서술형, 명사형이 많고 국어로

된 단어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조사 분석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서관에 관한 표어는 비교적 짧고 간단하다. 도치된 표현이 많다. 대구 표현이 많다. 반복 음절을 사용하고 있다. 청유형이 많다. 서술형이 많다. 명사형이 많다. 국어로 표현된 것이 많다. 반복하여 사용되고 있다. 그 시대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조사되지 못한 표어가 다수 있어 분석하지 못하였다. 전체적으로는 분석된 결과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조사되지 못한 표어는 반드시 후속 연구로 조사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제22권, 제4호(1967, 4).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제22권, 제7호(1967, 7·8).

새마을 운동본부. 월간 마을문고, 1966. 9.

오마이 뉴스, 2005. 4.15.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문화, 제32권, 제2호(1991).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문화, 제33권, 제2호(1992).

한국도서관협회. 도협월보, 제9권, 제2호(1968, 5).

한국도서관협회. 도협회보, 제18권, 제2호(1977, 3).

한국도서관협회. 도협회보, 제23권, 제1호(1982).

한국도서관협회. 도협회보, 제27권, 제2호(1986).

한국도서관협회. 도협회보, 제28권, 제2호(1987).

한국도서관협회 사무국 발송 공문, 1994년 3월.

한국도서관협회 사무국 발송 공문, 1995년 3월.

한국도서관협회 사무국 발송 공문, 1999년 3월.

<<http://blog.empas.com/mydears>> [인용 2005. 5. 2].

<<http://blog.empas.com/ewcys7/read.php?a=1428>> [인용 2005. 5. 3].

<<http://100.empas.com/entry.html/?i=182718&v=46&Ad=Encyber>> [인용 2005. 5. 2].

<<http://100.empas.com/entry.html/?i=99868&v=46&Ad=Encyber>> [인용 2005. 5. 2].

<http://www.seobu-lib.daegu.kr/s_book/book_01_02.htm> [2005. 5.20].

<http://chungdong.or.kr/bbs/hn_content.asp?id=556&ref=336&re_step=0&re_level=0&page=9> [2005. 5. 20].